

기생 경제와 기식음의 정보 체계로부터 : 이광수 『개척자』 재독

임 태 훈*

차 례

- | | |
|-----------------------------------|------------------------|
| 1. 序 : 『개척자』의 경제, 기생 생활
자의 생존술 | 3. 기생 경제의 치부책 |
| 2. 실험실을 에워싼 기식의 관계망 | 4. 징후로서의 기식음, 전체로서의 소음 |
| | 5. 結 : 기식의 바깥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개척자』를 기생 경제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상호부조의 경제와 약탈적 금융 자본의 충돌로 구성되어 있다. 성재 집안은 상호부조의 경제를 대대로 믿고 실천했으나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노리는 금융 자본에 무너지고 만다. 실험실을 에워싼 성재 가족의 관계 역시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성재의 실험실은 한성은행과 고리대금 업자, 법조인이 엮인 실사회의 금융 질서에 종속된 장소이면서, 상호 기식하는 가부장제의 장소다. 그래서 『개척자』는 후반부로 전개될수록 상호부조의 경제와 약탈적 금융 자본의 구분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초빙강의교수.

불분명해지고, 빼앗고 빼앗으려는 책략과 시도로 채워진다. 『개척자』는 기생 경제의 치부책으로 읽을 수 있다.

기식자들이 생존을 모색하고 또 다른 기식 대상을 포섭하려는 장면마다, 『개척자』는 특징적으로 소리와 청각에 민감해진다. 서로 뺏고 빼앗는 기식자들의 정보 체계에선 메시지와 소음, 언어와 소리의 위계와 코드화가 권력 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한다. 기식의 관계망마다 특유의 방식으로 코드화된 정보 체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소리’이다.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간의 연구사에서 『개척자』를 과학 소설의 관점에서 접근한 주요 무대인 성재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이곳이 어떠한 기식의 관계망에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실험실의 운영과 상실, 복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로 뺏고 빼앗는 기생 경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 소설의 ‘소리’와 ‘청각’에 대한 특징적 서술을 통해 ‘기식’과 ‘소음’의 문제가 어떻게 함께 사유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주제어 : 이광수, 개척자, 기식자, 미셸 세르, 기생 경제, 기식음, 소음, 기생 생활자, 과학, 실험실

1. 序 : 『개척자』의 경제, 기생 생활자의 생존술

『개척자』에 대한 연구는 ‘과학’과 ‘연애’의 주제를 양축으로 근대성의 성취와 관련하여 작가 의식을 평가하는 경향에서 주로 이뤄졌다.¹⁾ 이

1) 『개척자』를 1910년대 과학 담론과의 영향 관계에서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경훈, 『실험실의 야만인』,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김종욱,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과학적 세계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5. 황중연, 『신 없는 자연-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36, 2012. 김주리, 『1910년대 과학, 기술의 표상과 근대 소설』, 『한국현대문

소설의 중심 플롯을 성재의 실험실과 성순과 민의 사랑과 자살의 의미에서 주로 찾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 문학사에서는 고리 대금업자 함 사과의 패악에 맞서는 『개척자』의 장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²⁾ 이 소설의 가치를 ‘과학’이나 ‘연애’가 아니라 ‘경제’의 관점에서 읽은 것이다.

『개척자』의 전반부는 표면적으로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경제 관념의 충돌로 구성된다. 성재 집안은 상호부조의 경제를 대대로 믿고 실천했다. 성재의 실험실이 수익 한 푼 내지 못하고 7년이나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의 잇속에 좌우되지 않는 아버지의 경제관 덕분이었다. 그러나 성재의 실험실을 보호했던 경제권이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노리는 금융 자본에 무너진다. 이 진영에는 한성은행과 고리대금 업자, 법조인이 섞여 있다. 고리대금 업자 함 사과의 이 변호사는 직간접적으로 성재 집안의 도움을 받은 시기가 있었으나, 그들에게 그런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성재 집안이 전 재산을 잃는 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채무 계약서는 상호 합의로 작성되었고 상환 일정

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이행미, 『두 개의 과학, 두 개의 문명 :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류수연,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 『비교문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이 계열의 논문들이 문학과 과학 기술의 관련 양상을 살피는 기획들에 힘입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척자』의 서사 구조의 핵심을 연애와 감성으로 접근한 연구는 다소 정체한 것으로 보인다.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20, 비교문학학회, 1995. 소영현, 『정열의 근대적 배치-최찬식의 『능라도』와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김영민, 『『개척자(開拓者)』 다시 읽기』, 『사이間 SAI』 1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2) 『개척자』에 대한 북한 학계의 평가가 긍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고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일성은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청년운동을 하면서 『개척자』를 읽었는데, 함 사과의 패악에 맞서는 장면들을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오태호, 『이광수의 장편소설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사적 인식의 차이 고찰-『무정』, 『개척자』, 『혁명가의 이해』, 『흙』 등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5호, 춘원연구학회, 2019, 117-122쪽 참고. 이예찬, 『북한에서 춘원의 위상은 왜 변화하였나? -1956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참고.

을 어긴 것은 성재 집안이었다. 재산 압류 결정은 법원에서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됐다. 이 방법으로 고리대금 업자는 빌려준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척자』의 ‘경제’가 상호부조의 경제와 약탈적 금융 자본의 이분화된 구도로 보일 수 있으나, 실험실을 에워싼 성재 가족의 관계부터 간단치 않다. 이 실험실은 성재와 아버지 간의 경제적, 정서적 기식 관계로 유지될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교환은 비대칭적이다. 성재는 과학계의 선구자, 개척자를 자처하며 아버지에게 감동과 믿음을 줘야 했다. 언젠가 이뤄질 사업적 성공,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만큼의 막대한 수익을 온 가족이 꿈꾸게 해야 했다. 그 꿈과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장기간 이뤄졌다. 성재는 이 집안의 기식자(寄食者)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고리대금 업자와 한패가 된 셈이 된다. 전 재산을 잃은 뒤에 실험실을 복구하려 할 때도 여동생 성순의 혼사와 동경 유학 시절의 인맥 자본에 기식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성순을 제외한 온 가족이 이 책략에 매달린다.

『개척자』에서 기식자는 성재만이 아니다. 그의 실험실은 안팎으로 기식의 기식 관계로 엮인 곳이다. 이 관계는 결코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성재의 실험실은 실사회의 금융 질서에 연결된 장소이면서 상호 기식하는 가부장제의 장소다. 그래서 『개척자』는 후반부로 전개될수록 상호부조의 경제와 약탈적 금융 자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빼앗고 빼앗으려는 책략과 시도로 채워진다. 『개척자』는 기생 경제의 치부책으로 읽을 수 있다.

기식자들이 생존을 모색하고 또 다른 기식 대상을 포섭하려는 장면마다, 『개척자』는 특징적으로 소리와 청각에 민감해진다. 『무정』에서도 근대 신문명의 ‘소리’를 경청했던 장면들이 있었다. 『무정』과 『개척자』의 차이점은 1910년대 말의 식민지 경성에 거주하는 기생 생활자의 감각에서 청취가 이뤄진다는 데 있다. 서로 뺏고 빼앗는 기식자들의 정보

체계에서는 메시지와 소음, 언어와 소리의 위계와 코드화가 권력 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한다. 기식의 관계망마다 특유의 방식으로 코드화된 정보 체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소리’다.

본 연구가 ‘기식’과 ‘소리’를 함께 해석할 이론적 지지대로 삼은 것은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기식자 Le Parasite』(1980)이다. 프랑스어에서 ‘parasite’는 ‘식객’, ‘기식자’, ‘기생충’을 뜻하는 단어이자, 수신기의 ‘잡음’, ‘소음’을 뜻하는 영어 ‘static’에 대응한다. 이 책에서 세르는 모스의 『증여론』이 주장한 도덕 경제의 기원에 대한 신화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방된 기생의 연쇄 고리에서 연속되는 폭력과 갈취의 현실에 집중한다. 『기식자』가 설명하는 기식의 관계망은 착취-피착취의 고정된 이분법이 아니라, 기식자가 기식자에 기생하고 서로가 숙주이자 기식자가 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생기론적 특성을 갖는다.³⁾ 이것은 정보 체계의 구성과 작동의 원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체계에나 침입자, 신호망 속에 잠입하는 잡음, 완결된 체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결 요소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춘원과 세르를 함께 읽는 일은 흥미진진한 작업이긴 했으나, 1910년대 말 식민지 조선의 텍스트를 당대의 맥락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접근하려면 절제와 원칙을 정해야 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식’, ‘기생’의 주체어가 당대의 언어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기생충에 관한 위생 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례 수준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사회의 문제성을 폭넓게 진단한 핵심어로 발견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무정』과 『개척자』의 연재가 매일신보에 진행된 1917년부터 『개척자』의 단행본이 흥문당서점에서 출간된 1922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기식(寄食), ‘기생(寄生)’의 키워드가 신문과 잡지에서 사용된 경우를 찾았다.

와세다대 상과대를 졸업한 경제학자 선우전(鮮于全)은 1922년 2월 『개척』에 발표한 『<朝鮮人 生活問題의 研究 其一>』이란 글에서, “有力家の

3) 미셸 세르, 김웅권 옮김, 『기식자』, 동문선, 2002, 95쪽.

家人, 食客이 되어 同家の 使僕과 가티 同家の 家務, 家政에 從事 하면서 生活費의 大半을 同家에 依賴하는 寄生적 생활자(寄生的 生活者)⁴⁾의 숫자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경성부민(京城府民)의 75%가 월 소득 4백 원 이하의 무직자가 태반이라고 진단한다. 시장과 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기생적 생활자의 숫자도 줄어들 테지만, 낙후한 식민지 조선의 경제는 선대의 재산에 기식해 근근이 연명하는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척자』의 성재가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과정 역시 기생적 생활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윤치호는 자신의 영문 일기에서 조선 사회에 만연한 ‘기생 생활(parasitism)’을 비난했다. 1920년 1월 25일 일기에서는 “조선에서는 관직을 갖는 것을 인생의 최고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생(寄生) 생활이 명예로운 것이 되었다. 따라서 무위도식이나 게으름이 양반을 상징하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1921년 1월 22일 일기에서는, 조선 사회가 사회주의에 열광하는 이유를 “기생(寄生) 본능이나 심리, 즉 더부살이하는 재능”에서 찾았다. “자애로운 정부체제의 근간을 이뤘던 친족체제와 유교적 도덕성 덕분에 남에게 의존해 사는 사람들의 위계질서가 완벽하리만큼 발전”했고, 그 관성 탓에 사회주의에 쉽게 호감을 느낄 거라는 분석이다. 같은 해 5월 4일 일기에서도 “조선인은 이기심을 독립심으로, 기생(parasitism)을 상호부조(mutual help)로 잘못 알고 있다.”⁵⁾라고 썼다. 경제생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기본 풍속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의 전근대성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일관되게 ‘기생’을 쓰고 있다.

윤치호와 같은 태도와 관점은 『개척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재는 채무불이행과 재산 압류 문제를 서로 돕고 살았던 옛정에 호소해 해결

4) 선우전, 『朝鮮人 生活問題의 研究 其一』, 『개벽』 20호, 1922.2, 53쪽.

5) 이상의 인용문의 출처는 윤치호, 박미경 옮김,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7 (한국사료총서 번역서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이 자료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하러 한다. 고리대금업자 함 사과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성재가 ‘세의(世誼, 대대로 사귀어 온 情)’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어이없어하며 이렇게 대꾸한다.

“그러나 함 사과는 우리 세의(世誼) ……”

“허허. 지금 세의가 어디 있소.”

“그러면 노형은 친구의 정리(情理)도 없단 말이요?”

“친구의 정은 친구의 정이고 채권은 채권이고.”

“그러니까 내 청을 못 듣겠단 말씀이구려.”

“아니 그런 것도 아니지마는……. 나는 대리인이니까, 내 자유로 할 수가 있소?”

하고 이쭈시개에 요강(羊羹)을 꿰어주며.

“자, 과자나 자시오!”⁶⁾

1920년 2월 『신여자』를 창간한 김원주가 동시기 동아일보에 기고한 『여자교육의 필요』라는 글에서는, 조선 여성이 처한 현실은 “불공평한 남성들의 권역하에 寄生하고 盲從하였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근대적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⁷⁾ 동아일보는 같은 해 6월에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가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에 연재한 『자기로 사는 부인』을 재연재했다. 이 글에서도 ‘기생’을 여성운동의 주제에서 사용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들은 모험을 피하고 신시대의 생활로부터 떨어져 구식부인으로 퇴보하여 남자에게 기생하면서 노예적 존재를 계속하기에는 너무도 많이 신랄한 현대적 정신을 접했다.”⁸⁾ 『개척자』의 성순이 오빠의 실험실에 기식하며 동경 유학과 근대적 연애의 꿈을 꿨으나 모두 좌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 글과 겹쳐 읽어볼 수 있다.

6) 이광수, 『개척자』, 정홍섭 감수, 태학사, 2019, 49-50쪽. 이하 이 책의 인용은 본문에 페이지 수만 표기한다.

7) 김원주, 『여자교육의 필요』, 『동아일보』, 1920.4.6.

8)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자기로 사는 부인』, 『동아일보』, 1920.6.21.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개척자』를 과학 소설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주요 무대인 성재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이곳이 어떠한 기식의 관계망에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실험실의 운영과 상실, 복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로 뺏고 빼앗는 기생 경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 소설의 ‘소리’와 ‘칭각’에 대한 특징적 서술을 통해 ‘기식’과 ‘소음’의 문제가 어떻게 함께 사유될 수 있는지 탐구하려 한다.

2. 실험실을 에워싼 기식의 관계망

“화학자 김성재는 피곤한 듯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리 넓지 아니한 실험실 내로 왔다 갔다 한다.”(15)로 시작되는 『개척자』의 도입부는 연극적이다.⁹⁾ 막이 열리면 관객과 배우 모두가 무대를 현실의 어딘가로 상상하는 몰입 과정이 필요한데, 성재 역시 ‘화학자’라는 캐릭터로 분하는 일련의 의식에 집중한다. 그의 실험실은 학교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소가 아니다. 실험실의 목적과 운영을 정의하는 법률과 제도의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일 수는 있으나, 지속 가능한 실험실로 운영되기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성재의 거듭된 실험 실패는 실험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설계 단계에서 예정된 것이었다.

STS 학자 브뤼노 라투어(Bruno Latour)는, 실험실을 인간과 (기술

9) 이 소설은 1922년 4월에 무대에 옮겨져 흥행에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연극으로 각색된 <개척자>는 총 5막 구성이었다고 한다. “開拓者劇은 二日間인데 連日 滿員이었고, 第三幕과 第五幕인 最終幕은 꽤 잘 되었습니다. 最終幕에는 여러 사람이 울던 모양이외다.” 이광수, 『아내에게』, 이광수 전집 18, 삼중당, 1963, 498-499쪽. 이광수는 신문 잡지에 게재된 한국 최초의 창작 희곡인 『규한』을 1917년 1월 『학지광』 제11호에 발표한 바 있다. 『규한』은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여성의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개척자』의 성순이 죽음에 이르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김재석, 『<규한>의 자연주의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한국극예술학회, 2007, 41-44쪽 참고.

일반에 해당하는 것에서부터 세균, CO₂, 인쇄된 이미지, 출판된 논문 등 등에 이르는)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곳이자, 인간 비인간을 잇는 새로운 동맹과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곳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자연과 사회의 혼종(hybrid)이며,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장소가 된다고 정의했다. 이 구도 속에서 실험실의 과학자는 이 장소의 절대적 통치자, 중심, 주체라기보다는 자연/사회의 분리, 과학/정치의 분리, 주체/객체의 이분법이 불분명해지는 상태에 놓인다.¹⁰⁾ 거대 자본과 다수의 연구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각종 법령과 미디어 주목을 받을수록 과학보다는 실험실 안팎에서 밀어닥치는 정치적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

성재의 실험실은 그러한 '실사회(實社會)의 경험'(28)을 회피한다. 그는 이 장소가 복잡한 힘의 경합장이 되길 원치 않았다. 그가 목표로 한 것이 실험의 성공이 아니라 자족적인 실험실 구축이 전부였다면, 그는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셈이었다.

성재의 실험은 장장 7년이나 실패를 거듭했다. 이곳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 실험실일 수 있게 하려면, 화학자 김성재의 자기 확신과 신념이 꾸준히 충전되지 않고선 어렵다. 따라서 실험실의 장면 묘사가 팔각종(八角鐘) 시계부터 서술된다는 것은, 실험실이 표면적으로 표방하는 과학과 달리 어떤 필요에 충실한 장소인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게 한다.

어째서 유리 시험관이 아니라 팔각종 시계가 먼저일까? 이 시계는 성재가 일본에서 들여온 물건이다. 팔각종을 비롯해 실험실에 쓰는 기구와

10) 브뤼노 라투어, 장하원·홍성욱 옮김, 『관도라의 희망』, 휴머니스트, 2018, 466-474쪽 참고. 홍성욱, 『테크노사이언스에서 '사물의 의회'까지』, 『현대 기술·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그린비, 2016. 196-213쪽 참고. 참고로 라투어는 『기식자』를 쓴 미셸 세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라투어는 그의 초기 주저인 『프랑스의 파스퇴르화 The Pasteurization of France』(1988)를 미셸 세르에게 헌정한 바 있다.

도구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들이다. 성재 역시 도쿄에 있는 고등 공업학교에서 화학을 배웠다. 한국 근대과학의 기술자들이 일본 유학생 중에서 배출되었다.¹¹⁾ 그래서 이 실험실은 한국 근대과학의 일본적 기원을 일깨우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¹²⁾

실험실에서 보낸 7년여의 세월 동안 성재에게 그 시계는 ‘평생의 동무’(15)였다. 성재와 성순 형매(兄妹)는 실험실에서 일정하게 울리는 시계 소리에 안도하며 긴 시간 꿈에 몰입하며 지냈다. 시계 소리의 규칙성에 조용하는 두 사람의 정서를 제시하는 서술에 이광수는 각별한 공을 들였고, 시험관에 약물을 투입해 가스가 피어오르고 백색 분말을 옮겨 끓이는 과학의 장면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린다. 화학자의 실험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는 과학적 전문성을 이광수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¹³⁾, 실험실에 관한 서술이 부실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김주리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가 공통으로 지적한 바 있다. 『개척자』를 과학 소설이자 과학자 소설로 전제하고 기대에 부합할 성취를 찾으려 할수록, 이 작품의 실험실은 조악하게 그려진 무대 배경처럼 평가됨이 당연하다.¹⁴⁾ 1910년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실험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현실에 너무 앞선 시대착오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았으니¹⁵⁾, 소설이 그 결핍을 뛰어넘은 성취를 거두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1)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46-47, 75-77쪽.

12) 황중연, 앞의 논문, 147쪽.

13) 이점은 이광수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1910년대 과학 담론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잡지 『靑春』에 게재된 과학 독물 역시 황철수설 개론적 지식을 나열하거나 기답이나 유머로 격하된 우스갯거리로 다뤄졌다. 김주리, 앞의 논문, 50-51쪽 참고.

14) 김영민은 『개척자』의 서사 구조 핵심은 과학의 영역보다는 윤리와 관습의 영역에 집중함을 근거로, 이 소설을 성재를 중심으로 한 과학 소설이 아니라 민을 중심으로 한 연애소설이라고 평가했다. 『개척자』를 과학 소설로 평가하려는 연구자들의 과도한 욕망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권고이기도 할 것이다. 김영민, 앞의 논문, 110쪽.

15) 김주리, 앞의 논문, 66쪽.

하지만 『개척자』의 도입부가 집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과학의 현상이 아니라 ‘기식(寄食)’의 관계이다. 이 관계망은 온전히 성재의 설계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가 실사회의 정치나 경제 논리에 거리를 뒀던 것과 별개로, 실험실을 유지하는 온갖 조치에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잇는 연결망이 생성된다. 실험실에서 흔하게 소비되는 주정(酒精, alcohol)만 하더라도 성재 집안의 재산에 기식하고, 더 나아가 한성은행 계좌와 고리대금 업자의 장부로 연결된다. 주정을 실험실에 보급하는 일련의 절차만 살펴보더라도, 성재는 이 연결망의 매개자이면서 기식자, 숙주이기도 하다. 성재가 실험실 밖을 나와 실사회의 무정함을 마주하는 첫 장면이 주정을 보급하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도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을 과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읽는 일은 어렵지 않다. 성재의 실험이 대체 무엇인지, 그가 목표로 하는 발명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재의 실험 장면은, 무대 위에 막 등장한 배우가 어떤 캐릭터인지 드러내는 소품이나 분장의 기능적 역할에 일치한다. 그에게 실험실이란 화학자의 페르소나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 곧 무대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실험실 밖에서 김성재가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가감 없이 묘사되어 있다. 함 사과(司果)의 연회에서 기생들이 성재를 놀렸던 말 역시, 과장된 모욕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었다.

고요한 방에서 성재가 혼자 시험관을 물끄러미 주시하고 앉았을 때는 그의 측면에 걸린 팔각종의 푹푹뚱뚱 소리만 온 실내를 점령하는 듯하였다. 그러다가는 으레 성재가 일어서서 지금 모양으로 실내를 왔다 갔다 한다. 성재는 흔히 시계 소리에 맞춰서 발을 옮겨놓았고, 성재가 걸음을 좀 빨리 걸으면 시계도 빨리 가고 더디 걸으면 더디 가는 듯도 하였다. 성재는 그 팔각종을 노려보며 팔짱을 끼고,

“칠 년! 칠 년이 짧은 세월은 아닌데.”(16)

“그게, 저, 김 참서 아들이야. 그런데 무엇을 하노라고 그러는지 종일

방 안에 들어앉아서 무슨 유리통을 불에다 쪼고 있어. 나도 심심하면 물레 가서 창틈으로 디밀어 보지.”

“유리통은 불에다 쪼여서 무엇하누?”

“내가 아니? 꼭 손가락같이 생긴 것이더라. 그것을 이렇게 불에다 대구는 우두커니 앉았겠지. 저 간호부 복장 같은 흰 복장을 입구서. 내 무엇을 하는지 당초에 알 수가 없더라.”(40)

두 장면에 묘사된 화학자 김성재는 과학은 없고 포즈만 있을 뿐인 몽상가라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개척자』의 도입부는 『무정』의 삼랑진 여관과 달리 과학의 중요성을 응변하고 있지 않다. 과학자의 정체성에 과몰입된 자의 윤희된 무대가 제시될 뿐이다. 그래서 실감 나는 실험실의 현장성을 살리기보다는, 시계 소리로 대표되는 장소의 정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시계에서 시험관으로, 다시 시계로 옮겨다니는 실험실의 한정된 동선은 7년이나 되풀이된 일상이다. 성재가 믿는 개화, 개조의 이상이 ‘실사회’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자족적인 긍정과 기대를 충전 받을 수 있는 장소 역시 실험실뿐이다. 교수직을 제안한 학교조차 성재에게는 개인 실험실만 못한 곳이었다.¹⁶⁾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발명을 성공시켜 일확천금을 벌고 조선 과학계의 개척자라는 명성을 얻는 일에 마음이 쏠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재의 실험실은 과학의 장소가 아니라 투기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성재는 실험실에 삶의 모든 의미를 옥여넣었다.

문제는 이곳을 지속 가능한 장소로 운영할 방법이다. 성재의 실험실은 부친의 재산에 기식해 유지되었다. 동경 유학생 출신이자 학교에서 교수

16) 해방 이전의 화학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성공업전문, 연희전문, 숭실전문, 대동공업전문, 세브란스의학전문 등에서 교편을 잡는 진로를 택했다. 대부분이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채로 귀국했다. 문만용·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08-109쪽 참고.

제안까지 받은 바 있는 아들의 실험을 김 참서는 무작정 7년이나 조력했다. 그 때문에 집안의 재산은 바닥이 나고 말았다. 고리대금업자 함 사과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이 단계에 이르러 실험실에 또 한 선의 기식의 관계가 묶인다.

고리대금업자의 금융 자본과 실험실에 대한 성재의 집착이 상호 기식한다. 이 기식의 관계망엔 김 참서 집안의 금융 계좌가 개설된 한성은 행과 함 사과의 채권 업무를 대리하는 법조인(변호사), 채권자의 가차압 청원을 합법적 명령으로 승인해준 사법 시스템이 직간접적으로 엮인다.¹⁷⁾ 이 구조는 오늘날 우리 삶을 촘촘히 지배하는 약탈적 금융 통치의 면면과 다르지 않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개척자』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과 달리¹⁸⁾, 북한 문학사에서 고평 받을 수 있었던 근거 역시 약탈적 자본주의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실 운영은 사채를 쓰기 전에 종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개척자』는 그 임계를 한참 넘긴 시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아버지 김 참서만이 아니라 집안사람 누구도 이 위기에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 성재의 열정에 도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식의 관계는 경

17) 한성은행은 1903년 2월 합자회사 공립한성은행으로 개편한 이후, 일본 다이이치은행(第一銀行)의 용자와 친일파의 은사공채 인수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왔다. 『개척자』가 연재되던 시점인 1917년에서 1918년 사이는 일본인 지분이 급증하던 시기(1906~1922년)와 일치한다. 1919년 3·1운동 시기에 이 은행은 한국인들의 배척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 은행장은 이완용(李完用)의 형인 이윤용(李允用)이었고, 전무는 이완용의 조카 한상룡이었다. 정태현, 『漢城銀行의 經營權, 大株主 구성 추이와 日本人銀行化 과정』, 『韓國史研究』 제148호, 한국사연구회, 2010, 209-212쪽 참고. 김명수, 『대한제국기 일본의 금융장악 기도와 일본 제일은행-1903년 공립한성은행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본문화연구』 47호,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참고.

18) 『개척자』에 대한 혹평은 김동인의 『춘원연구』에서부터 이어졌다. 김윤식 역시 같은 관점의 연장선에서 “신사상의 주입이 겉으로 뻗히 드러난 졸작”이라 평했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한길사, 1986, 570-574쪽. 권영민과 김정미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206쪽. 김정미, 『이광수의 문학과 민족 담론』, 역락, 2011, 55쪽.

제적 합리성보다는 개척자의 성공 신화,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는 기대감이 뒤엉켜 있다.¹⁹⁾ 뭔지 모를 발명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기회 역시 생길 거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을 줄 만큼 성재의 연기는 가족의 눈에 그럴듯해 보였을 것이다.

이 집안의 딸인 성순이 실험실의 주인이었다면 실험실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동경 유학을 다녀온 모범생 아들의 도전이기 때문에 실험실은 가부장의 지지와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실험실을 에워싼 기식의 관계망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사회의 금융 질서에 연결된 횡선(橫線)이라면, 표면적으로 상하 지배종속 관계처럼 보이거나 그러한 이분법이 불분명해지는 상호 기식적 가부장제의 이면이 종선(縱線)을 이룬다.

3. 기생 경제의 치부책

성재와 성순 형매가 실험실에서 반복하는 일상 역시 소설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끝내 파국을 맞이한다. 그리고 『개척자』는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채무자가 겪는 굴욕과 모욕의 장면을 연달아 보여준다. 성재는 한성은행에서 고리대금업자 함 사과의 집과 채권 업무를 대리한 변호사의 집을 찾아야 했다. 고리대금 업자와 그의 법률 대리인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성재를 모욕하는 일을 즐긴다.²⁰⁾

함 사과는 한때 성재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19) 성재 가족이 열광한 정념은 각자의 욕망에 부합하는 것이면서 국민 형성(nation building)의 기획에 포획된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해선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소영현, 앞의 논문, 159-186쪽.

20) 『개척자』를 자본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접근한 전혜진은 박사 논문은, 이 소설에 관한 그간의 연구 경향과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줬다. ‘돈’이 ‘자본’이 되는 과정에서 성재 집안의 몰락은 근대화의 결과가 아니라 근대화의 조건이었음을 분석했다. 전혜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주체 구성 과정과 상징적 네트워크로서 근대 경제 체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논문, 2019, 51-55쪽.

있었던 이고, 이 변호사는 동경 유학 시절에 성재의 푼돈에 기생했던 속물이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다시 만난 그들은 역전된 권력 관계를 과시한다. 김 참서와 성재에게 체화된 경제관은 잇속을 내세우기보다는 공생의 해법을 우선하는 상호부조의 경제였다.

아버지 말씀에 “설마 한 사과야.”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또 언젠가 “함 사과가 포목전에 크게 실패를 하여 진퇴유곡 하였을 적에 자가 돈 만 냥을 주어 전당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부친의 술회담 중에서 들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함 사과가 불과 삼천여 원 돈에 가차압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33-34)

성재는 그 결음으로 이 변호사의 집에 갔다. 이 씨는 이전 동경 유학 시절에 같이 있던 사람이며, 그때에는 학비에 궁하여 흔히 성재한테 일원 이 원을 취하러 왔다. 성재는 혹 그 청구에 응하기도 하고 아니 응하기도 하였다. 성재에게 취하여간 돈은 갚아본 일이 없었다. (42)

이러한 경제관에서는 금전적 이익보다 명예가 우선된다. 당장에 빌려준 돈을 기한에 맞춰 회수하는 일보다는 존경하고 존경받는 일이 소중히 여겨진다. 구체적 상황과 조건을 문서로 정해 계약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응당 돕는 것이 경제 논리에 앞선 명예이자 도리라 믿는 세계다.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피하는 자본주의의 ‘교환’ 경제와는 다른 ‘주고 - 받고 - 되갚기’로 이루어진 선물의 삼각 구조, 비균형적 교환체계다.²¹⁾

그러나 상호부조의 경제권을 유지하는 상호 자발성의 문제는 전근대 사회라고 이상적인 형태였던 것은 아니다. 우선 기식과 공생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하다.²²⁾ 선의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이들만 결합한다면 긴

21) 김성례,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비교문화연구』11(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5, 157-160쪽 참고.

22) 일방적 기식 또는 상호 공생의 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생생물-숙주 사이

시간을 두고 선순환될 수 있다는 도덕적 경제의 신화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²³⁾

미셸 세르의 『기식자』는 모스의 『증여론』과 달리 도덕 경제의 기원에 대한 신화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개방된 기생의 연쇄 고리에서 연속되는 폭력과 갈취의 현실을 주목한다.²⁴⁾ 이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식하며 끝없이 이어진 기식의 연결망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구도에선 사회적 조화와 공생보다는 가로채는 행위(taking)가 언제나 만연하다. 이 책에서 세르는 기식의 세계, 즉 차이와 소음, 무질서가 만연한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생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²⁵⁾, 『증여론』이 지향하듯 상호 호혜의 사회를 굳이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당, 약탈자, 횡방꾼, 협잡꾼으로 득실거리는 세계를 당연히 여기고, 선악의 이분법이나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적 관계의 예외적 발생을 탐구했다.

기식자는 새로운 것을 창안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처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를 구축한다. 그는 교환과 엇갈리고 그것을 대각선 반향으로 가로지른다. 그는 교환하지 않고, 통화를 바꾼다. 그는 고체를 받고 목소리를 주고, 단단한 것을 받고 기체를 주고, 하부 구조를 받고 상부 구조를 주고자 한다. 사람들은 웃고, 그를 추방하고, 그를 놀리고, 그를 때린다. 그는 우리를 속이지만 새로운 것을 창안한다. 이 새로운 것을 분석해야 한다. 금화나 불치구이로 통하는 그 소리, 그 향기, 그 냄새를 말이다.²⁶⁾

의 복잡성은 기생생물학 분야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일부 미생물 기식자의 경우는 숙주 인간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거나 면역계 강화의 보호 작용을 한다. 캐슬린 매클리프, 김성훈 옮김, 『숙주인간』, 2017, 10쪽 참고.

23) 박정호,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 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 『문학과 사회』 7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09, 7-49쪽 참고. 박세진, 「선물과 이름 : 근본적인 인정 행위로서의 증여」, 『비교문화연구』 2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265-309쪽 참고.

24) 미셸 세르, 앞의 책, 16쪽.

25) 이승철, 「불가능한 증여, 기생의 사회: 자크 데리다와 미셸 세르의 상호성 비판」, 『비교문화연구』 25집 2호, 서울대비교문화연구소, 2019, 212쪽 참고.

『개척자』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역시 기식의 기식 관계에 얽혀 있다. 인물들의 관계도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그 연결망의 성격은 달리 해석된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에워싼 것은 식민지 조선이다. 조선은 일제의 수탈 대상이었다. 그 시스템에 함 사과와 이 변 호사가 연루되어 있다. 『개척자』는 실험실 안팎을 오가며 사회 곳곳에서 횡횡하는 새로운 약탈과 기식의 관계를 묘사한다.

성재 집안은 집과 전답을 모두 빼앗기고 실험실도 중단된다. 전 재산을 날린 김 참서는 심장 마비로 사망한다. 그가 믿고 유지해왔던 상호부조의 경제권도 소멸했다. 아버지의 부에 기식할 수 없게 된 성재는 실험실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기식에 걸든 그의 몸은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지 못했고 독감에 걸려 병상에 눕는다.²⁷⁾

성재는 실험실을 다시 꾸리고 전략한 집안을 일으킬 방법을 기식의 전략에서 찾는다. 기식의 새로운 연결선은 동경 유학 시절의 인맥 자본이었다. 성재 어머니도 이 책략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상처(喪妻)하고 후처(後妻) 감을 찾던 동경 유학 시절의 동기 변에게 성순을 시집보내는 일이다. 변은 재력가였다. 부자 아버지를 대용할 숙주로 삼기에 적당한 대상이다. 변으로서도 성재 집안의 불운은 성순을 취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의 속내는 성재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 『개척자』의 후반부는

26) 미셸 세르, 앞의 책, 66-67쪽.

27) 『개척자』가 1917년 11월 10일부터 1918년 3월 15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는 동안, 성재가 독감을 앓는 장면은 후반기인 1918년 연재 분량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중이자 스페인 독감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만으로 성재가 스페인 독감을 앓았다고 지레짐작할 순 없다. 다만 미셸 세르의 『기식자』에서 ‘질병’은 하나의 생리학적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변모시키는 기식자다. 독감을 앓는 장면을 기점으로 성재의 캐릭터가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이유를 질병-기식자-생리학적인 질서의 일탈이라는 구도에서 해석해볼 순 없을까. 이 문제는 일단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후속 연구를 기약하며 여기에 단상을 적는다.

남성 인물들의 기식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내면 서술에 집중해 독해할 필요가 있다. 성재를 비롯해 민과 변 모두가 성순을 겨냥했다.

성재 집의 파산은 그의 성공의 제일의 기회였었고, 성재의 중병은 제이의 기회였었다. 그는 이것이 천재불우(千載不遇)의 호기회(好機會)인 줄을 알뿐더러, 근일 민과 성순과의 친근이 막대한 위험을 예고하는 듯 하여 성재의 전쾌(全快)를 기다릴 새도 없이 그의 모친의 의향을 알아보려 한 것이다. 그러다가 모친에게 반대의 의향이 없음을 알매 그는 팔분(八分)의 의향을 확신하여 희열을 금하지 못하였다. (110)

문제는 성순의 협조였다. 성순 역시 실험실의 사람이었다. 성재는 자기 부인과 아이에게조차 실험실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순은 실험실을 자유로 드나들고 실험에 참여하는 엄연한 구성원이었다. 이광수는 이 소설에서 단 한 번도 성순을 ‘화학자’라 칭하지 않았으나, 성순의 작업 숙련도는 제법 전문적이다. 약품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실험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도맡았다. 그래서 성재는 실험실에서 성순을 항상 칭찬했다. 발명이 성공해 큰 부자가 되면 동경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자주 했다. 성순도 “나도 오빠와 같이 고등공업학교에 가지.”(25)라고 대답하곤 했다. 성순에게도 실험실은 꿈을 꾸는 장소였다. 게다가 성순에게 성재는 친오빠이자 이상형의 남성이기도 했다. 연애 대상을 물색할 곳도 오빠의 인맥이 전부였다. 실험실은 ‘과학’만이 아니라 ‘연애’의 장소였다.

성순은 오빠와 닮은 점이 많은 가난한 유부남 화가 민을 사랑하게 된다. 그는 실험실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숙주가 못 될뿐더러, 상처한 변과 달리 엄연히 아내가 살아 있는 유부남이었다. 성순이 실험실 복구를 성재만큼 강렬히 욕망하고, 동경 유학 운운하던 오빠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면, 변과 기식적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성순은 기식적 가부장제의 종선(綜線) 밖으로 탈출한다.

‘과학’과 ‘연애’는 1910년대 현실에선 신시대의 최첨단 가치이자 친구 갈등의 뜨거운 전선이였다. 가부장제의 구시대적 관성에 물든 오빠 성재와 달리 성순은 자신을 시대의 억압을 깨뜨릴 ‘대전쟁의 첫 탄환’(147)이라 여겼다. 그녀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택한다. 이 일로 성재의 실험실을 에워싼 기식의 관계망은 재차 파국을 맞이한다. 실험실에 재력가의 돈을 끌어오는 것이 성재에게는 마지막 반전 카드였으나 잃고 만 것이다.

이렇듯 『개척자』는 실험실을 에워싼 기식의 복잡한 연결망이 종횡으로 얽히다가 서로를 때리고 해체되는 이야기다. 가능한 삶의 진로라고는 결혼하여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길밖에 없는 젊은 여성 성순은 기식의 연결망 안에서도 최약체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격발점이 된다. “기식자는 주인을 추방하면, 곧바로 자살한다.”²⁸⁾ 김 참서의 죽음을 겪은 뒤에도 포기하지 못했던 성재 가족의 실험실에 대한 집착, 기생 경제의 지리멸렬한 연장이 성순의 죽음을 계기로 결정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식의 연결망에서 최약체의 자리에 머물며 온갖 힘의 되먹임을 감수해야 했던 성순에게, 『개척자』는 기생 경제의 치부책이다.

4. 징후로서의 기식음, 전체로서의 소음

세르에게 언어와 문화는 삶의 기생적 차원의 확장이자 발명이다.²⁹⁾ 『기식자』는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변주한다. 서로 뺏고 빼앗는 기식자들의 정보 체계에서, 무엇이 메시지가 되고 반대로 소음으로 격하되는지, 언

28) 미셸 세르, 앞의 책, 333쪽.

29) 인터넷은 전지구적인 소통 체계 자체가 기생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극명한 예다. 맛떼오 파스퀴넬리, 서창현 옮김, 『동물혼』, 갈무리, 2013, 86쪽, 395쪽.

어로 승격되어 커뮤니케이션의 위력을 발휘하는 말과 복적거리는 소음에 묻혀 휘발되는 사물의 소리가 어떻게 나뉘는지 분석하는 것이 『기척자』의 주요 내용이다. 기척의 관계망마다 특유의 방식으로 코드화된 정보 체계를 다름 아닌 ‘소리’가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척’을 주제로 『개척자』를 재독(再讀)하는 이 연구의 관점에서, ‘소리’에 예민한 이 소설의 특징들은 흥미롭기 그지없다. 도입부 실험실의 팔각종 시계 소리, 함 사과 집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연회의 소음과 그 소리에 압도당하는 성재의 목소리, 연회의 떠들썩함을 광기로 압도하며 저주를 퍼붓는 전경의 모습, 종로의 인경 소리, 서울의 겨울을 짓누르고 있는 공허한 소리, 성순이 독약을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는 감각 역시 청각이었다. 그리고 성순이 숨을 거뒀을 때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성순이 바랐던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선인에게 미묘한 음향의 세계에 들어가는 귀”(139)를 주는 것이라 했던 장면도 이 계열의 연속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서술 방식의 한 특징에 불과한 것일까?³⁰⁾ 이 소설의 ‘기척’과 ‘소리’는 함께 분석될 수 있을까?

『개척자』의 구성에서 일관성을 깨뜨리는 느닷없는 장면이라고 지적된 장면마다 특징적으로 ‘소리’가 강조되어 있다.³¹⁾ 김 참서의 혼백이 들린 전경의 등장은 과학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 사과를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벌하는 역할을 끝낸 뒤로는 서사에서 사라져버린다. 성순과 민의 사랑이 성재에게 발각되어 위기에 직면

30) 『무정』의 주인공 이형식도 소리의 감각과 상상력 민감한 인물이다. “지구의 돌아가는 소리”, “무한히 먼 공중에서 별과 별이 마주치는 소리”, “무한히 적은 ‘에테르’의 분자의 흐르는 소리”, “메와 들에 풀과 나무가 밤 동안에 자라느라고 바삭바삭 하는 소리”, “몸에 피 돌아가는 것과 그 피를 받아 즐거워하는 세포들의 소곤거리는 소리” 김철 校註,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4, 395-397쪽.

31) “특히 『개척자』는 중심 플롯에서 이탈하는 주변 서사가 장황하게 서술되고, 돌연 서술자의 담론이 길게 삽입되어 서사의 흐름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은 서사적 미숙이라는 부정적 평가의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행미, 앞의 논문, 97-98쪽.

하는 이야기 흐름에 부자연스럽게 끼어드는 '13-1'과 '13-2'로 이어지는 서울 밤 풍경과 소리에 관한 서술 역시 덜그럭거린다. 서술자의 목소리와 의도가 앞에 쌓아 올린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과하게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척자』를 두고 “춘원의 이데올로기를 소설 형식으로 억지로 빚어 놓으려고 한 것”³²⁾이라고 했던 김동인의 비판은 부당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척자』를 ‘기식자’에 관한 소설로 읽는다면, 일관성을 해쳤다고 지적받은 장면조차 기식자 세계의 생리를 이해할 수 있는 서술 장치로 재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해충이나 병균에 오염된 장소에서 악취나 얼룩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기식자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탐입하여 교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소리’인 것이다.

이 같은 발상은 미셸 세르의 『기식자』에서 얻을 수 있었다. 프랑스어에서 ‘parasite’은 ‘식객’, ‘기식자’, ‘기생충’을 뜻하는 단어이자, 수신기의 ‘잡음’, ‘소음’을 뜻하는 영어 ‘static’에 대응한다. 『기식자』를 한국어로 옮긴 김웅권은 동음이의(同音異義)의 맥락을 살려 ‘기식음(寄食音)’으로 번역했다.³³⁾ 이 책에서 세르는 인류학적, 생물학적 ‘기식’ 개념에서 출발하여 정보이론에서 사용되는 잡음과 소음의 영역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한다.

이 책의 핵심 명제는 “기식자가 없는 체계는 없다.”³⁴⁾는 것이다. 세르는 일방향적 기식 관계야말로 사회관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라고 분석한다. 어느 체계에나 침입자, 신호망 속에 잠입하는 잡음, 연결된 체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결 요소가 상존한다. 사회의 구성 원리이자 경제적 합리성의 토대로 여겨지는 ‘교환’의 공리도 예외가 아니다. 두 행위자 사이의 소통과 재화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이를 탈취하는

32) 김동인, 『춘원연구』(4), 『삼천리』, 1925.2, 215쪽.

33) 미셸 세르, 앞의 책, 62쪽.

34) 위의 책, 28쪽.

기식자, 소음의 개입이 항상 존재한다. 이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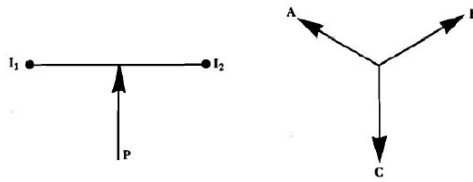


그림 1. 기식관계의 도식. 미셸 세르, 『기식자』, 93쪽.

기식자(P)는 두 행위자(I_1 , I_2) 사이에서 간섭한다. 이때 기식자(P)는 인간 행위자만이 아니라 ‘소리’일 수도 있다. I_1 , I_2 , P의 지위는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_1 과 P의 관계에선 I_2 가 기식자가 된다. A, B, C의 방향으로 뻗은 방사형의 도식은 상호치환 가능한 행위자들 간의 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망에 또 다른 기식의 관계가 끼어들고, 그 연쇄가 반복될수록 복잡도는 높아진다. 누가 누구에게 기생하는가를 묻는 것은 유동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

『개척자』의 장면들을 예로 다시 설명해보자. 함 사과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일본어로 말한다.(43) 어눌한 그의 일본어는 재판장의 폭소를 일으킬 지경이지만, 관공서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언어는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다. 조선어는 소음이고 일본어는 메시지가 된다. 이 변호사의 일본어는 소음에 오염된 순도가 떨어지는 메시지이지만, 법정 언어로서의 일본어의 정보 체계에 기식해 성재 집안의 재산을 압류하는 판결을 받아낸다. 성재는 일본어와 조선어를 오가는 이 변호사의 음성 변화가 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리하게 기억하고 있다.(46) 그 변화는 이 변호사가 한때 속했으나 벗어났던 기식의 관계망, 새롭게 자리를 차지한 기식의 위치를 반영한다.

성재는 실험실 유지에 필요한 돈을 찾기 위해 한성은행을 찾는다. 그 돈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담보로 함 사과에게 빌린 자금이고, 그나마 얼마 남지도 않았다. 그런데 차용금 상환 기한이 지나자 함 사과는 계좌를 압류해 버린다. 성재와 한성은행 간의 상호소통에 법원의 압류 결정 메시지가 끼어든 것이다. 이때 메시지와 소음을 구별하는 것은 권력의 위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된다.³⁵⁾ 한성은행으로선 예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성재의 요청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필요가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

성재는 함 사과와 그의 법률 대리인 이 변호사를 차례로 만나 압류 결정을 유보하려 애쓴다. 성재가 자기 뜻을 전하려 애쓸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기생들이 웃고 떠드는 연회의 소음에 묻혀 압도되거나 공공연히 무시된다. 조선 말기 판소리 5대 명창 중 하나였던 이동백까지 초대된 자리였다. 성재와 같은 차용인에게서 약탈한 재산으로 누리는 유흥이다. 함 사과의 연회장에는 파티의 주인에게 아양을 떨고 술과 음식, 음악을 즐기는 기식자로 가득했다. 그들은 한때 성재 집안을 드나들던 식객이기도 했다.

“좀 어쭈 말미 있어서 왔습니다.”

“응, 무슨 말? 일후(日後)에 오게. 오늘은 손님들이 많으니 말 들을 새 없네.”

하고 일동을 향하여,

“자, 이제는 기생들 소리나 들읍시다. 애, 기생들아, 이리 나와 소리나 하여라. 이동백(李東伯)이 아즉도 아니 왔느냐?”

“응, 기생들아 소리나 하여라.”

하고 객들이 응한다. 객들은 대개 함 사과의 젊었을 적 친구이므로 아직도 빈궁한 자가 많다. 그네는 함 사과와 김 참서의 생일을 자기네의

35) “체계에서 소리와 메시지는 관찰자와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 역할을 교환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과 체계에 따라 서로가 서로 속에서 변모한다. 그것들은 질서나 무질서를 만든다.” 위의 책, 111쪽.

큰 명절로 알다가 지금 와서는 김 참서는 윤락(淪落)하고 오직 함 사과가 남았을 뿐이다. 기생들은 혹은 장고를 들고 혹은 가야금을 들고 한데 모여 앉는다. 장고 등등 하는 소리, 가야금 줄 고르는 소리가 나자 객들의 눈은 기생에게도 몰린다. 성재의 존재는 아주 잊어버리고 말았다. 성재는,

“급히 여쭙 말씀이 있어서 왔으니 잠깐만…….”

“응, 자네 아즉도 거기 섰네그려. 저편 소년들 모인 데 가서 놀게.”

“놀 새가 없습니다.”

“그럼 가게그려.”(38)

부슬부슬 떨어지던 가을비가 개고 구름 터진 틈으로 추위 보이는 일광이 한성은행 벽돌 벽을 스쳐서 함 사과 집 사랑 대청에 들이 쏘인다. 이윽고 장구 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나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며 간간히 “좋다!”, “좋다!”하는 소리가 들린다. 매우 불평하던 주인의 안색에도 화기가 돌고 그것을 따라 객들도 질탕하게 놀기를 시작한다. 기생들도 흥을 내어 “좋다!” 소리를 연방하며 가끔 남녀성(男女聲)이 합한 웃음소리가 대문으로 나온다. 문밖에는 이웃집 행랑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서 새어 나오는 풍류를 얻어듣고 섰다. (41)

성재는 함 사과를 둘러싼 기식과 소음의 연결망에 코드를 맞추지 못했다. 술과 음식, 유흥으로 들뜬 함 사과와 파티를 즐기려면 숙주가 즐거워할 소리를 내야 하고, 그의 기분에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 기꺼이 그 코드에 합류하려는 기식자들이 함 사과와 문밖에까지 늘어서 있다. 이 기식의 관계망을 해체한 것은 함 사과보다 더 큰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가 아니라, 김 참서의 귀신이 들린 전경이다. 그는 한때 북간도에서 육혈포를 들고 투쟁했던 지사였으나³⁶⁾, 지금은 불구의 몸에 정신까지 온전

36) 황중연은 전경으로 대표되는 ‘지사’의 인물형이 『개척자』에서는 이일우로 대표되는 신사와 과학자 성재에 비교하여 도태된 것으로 처리된다고 분석한다. “조선 사회가 그간 엄청나게 달라져 조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정념은 이제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평가한다. 황중연, 앞의 논문, 148-149쪽 참고.

치 못한 사람이다. 지인들의 호의에 기대 이곳저곳을 떠돌며 기식하는 신세다.

그는 봉두난발 피투성이 괴물의 모습으로 함 차사의 연회에 뛰어든다. 그리고 유홍에 흥청거리느라 잊고 지냈던 함 사과의 죄의식을 자극한다. 하필 이 장면은 함 사과가 소리꾼을 불러 들던 춘향전 어사또 출동 장면 에 겹친다. 권선징악의 극적 고조 속에서 악인은 함 사과 자신임을 공공 연히 지목당한 순간이다.³⁷⁾

“이놈, 내가 누군데. 나는 김 참서야. 내가 아까 죽었는데 함 사과 너 를 잡으러 왔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김 참서인데 자네를 두고 혼자 갈 수가 있나. 자, 염라대왕한테로 같이 가세.”

함 사과는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리고 머리칼이 쭈뼛쭈뼛 하 늘로 솟는 듯하였다.

“어찌해? 무엇이 어째?”

“하하. 자, 어서 갓 쓰고 나오게. 지금 대문 밖에 사자(使者)가 와서 기다려.”

하고 고개를 돌려 대문을 향하며,

“여보 사자들, 함 사과 여기 있소. 옳지, 저기 저 뚱뚱한 것이 함 사과 요. 내 좋은 친구지.”

하인들은 괴물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함 사과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그 괴물은 성재의 집에서 뛰어나온 전경이었다. (81)

전경의 말(소음)은 함 사과가 장악한 기식의 관계망을 꿰뚫고 일순간 주인 자리를 빼앗았다. 이날 이후 함 사과는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미쳐

37) 이 시기 이후로도 춘향전에 대한 이광수의 관심은 각별했다. 그는 1925년 9월 30일부터 1926년 1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일설춘향전>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연구로는 이지영, 『이광수의 <일설춘향전>에 대한 再考』, 『한국현대문학연구』 49호, 한국현대문학회, 2016. 이광수 초기소설이 『채봉감별곡』 등의 고전적 세계관과 맺는 전유와 페러디의 관계 양상에 대해선 황종연, 『노블, 청년, 제국 - 한국 근대소설의 통국가간 시각』,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2005를 참조할 것.

간다. 그의 돈을 담했던 기생들조차 행동거지가 기괴해진 함 사과를 겁내고 떠난다. 매일같이 열리던 연회도 중단된다. 함 사과와 내면에서 활성화한 죄의식의 코드가 기식자의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바꾼 것이다.

『개척자』는 이러한 변화의 증상을 관찰하며 소리에 집중하는 소설이다. 어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거나 사라졌는가, 어떤 소리가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소음 속에 휘발되는가, 반대로 메시지의 지위를 얻지 못한 소음이 어떻게 주인에게 전달돼 그의 자리를 빼앗고 기식의 관계망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가.

함 사과의 경우는 다분히 권선징악의 결과이지만, 이는 기식 관계의 연결망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의 하나에 불과하다. 선악의 이분법이나 도덕률에 도식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불안정성과 재조합의 가능성은 광활히 열려 있다. 새로운 체계가 건설되고 파괴되는 징후(徵候)를 발신하는 ‘소리’의 의미를, 세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하여 이 소리는 새로운 체계를 열어 준다. 이런 측면은 더는 관찰자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시간에 달려 있다. 소리는 하나의 체계의 종말이자 새로운 체계의 형성이다. …… (중략) …… 소리는 하나의 조커이다. 그것은 제3자로서 적어도 두 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파괴의 가치와 건설의 가치 말이다. 소리를 배제해야 하고, 그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쥐들의 이야기이고, 복잡한 체계의 묘사이다.³⁸⁾

이 설명은 『개척자』의 가장 부자연스러운 장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소설의 시선은 전반부까진 인물들 간의 구체적 사건이 이뤄지는 장소에 머물며 관찰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3-1’에 이르러 갑자기 시대의 풍경으로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뛰어오른

38) 미셸 세르, 앞의 책, 112쪽.

다. 서술자는 역사의 천사처럼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부감(俯瞰)한다. 이때 서울은 아직 고등한 진화에 이르지 못한 거대한 생명체에 비유된다.(130) 새 체계로 거듭나는 건설과 파괴의 소리는 발생이 임박했으나 기다림이 필요한 단계다.

그것은 모르지.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하동(何洞), 하통(何統), 하호(何戶)에 있는지, 또는 하가(何街), 하천(何川)에 있는지. 그러나 다만 제군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라. 반드시 무슨 소리가 들릴 것이니. 제군이여, 그 소리가 즉 새 생명의 심장의 고동이다. 그 소리가 비록 극히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무한히 커지려는 ‘힘’이 사무친 것을 아는 자는 알 것이다. 그 소리가 지금 비록 음부(音符)의 일 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차 일정이 되고 이절이 되고 삼절이 되어 마침내 일대 음보(音譜)를 성(成)하고야 말 것이다. 피아노의 제일 좌편의 첫 건(鍵)을 울릴 때에 그것은 극히 단조한 저음에 불과하지마는 다음 건, 다음 건, 연해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점점 고음이 되어, 마침내 우편 최종 건의 백(帛)을 열(裂)하는 듯한 최고음에 달하고야 만다. 그러나 일 건씩, 일 건씩 누를 때에는 아직도 단조(單調)에 불과하지마는, 양수(兩手)의 십지(十指)가 눈에 보일 새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에 오인(吾人)은 황홀한 음악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군은 새 생명의 소리가 너무 미미하고 단조한 것을 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소리가 들렸으면 그것은 피아노의 제일건인 줄 알아야 한다. (129-130)

『무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광수는 개개인의 일상, 미시적 생활의 장에서부터 구습과 결별하고 새 시대의 개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획을 내세웠다. 하지만 『개척자』는 그런 신념과 실천이 끝내 배반당하는 소설이다. 위에 인용한 대목에서 이광수는 소리로 이루어진 전체가 강력한 근대의 메시지로 종합될 수 있다고 설득하지만, “소리로 이루어진 전체는 소음”³⁹⁾일 뿐이다.

성순에게 ‘과학’과 ‘연애’, ‘인권’의 최첨단 사유를 전했던 이들조차 하

39) 위의 책, 200쪽.

나같이 그녀를 기식의 대상으로 여겼다. 자신을 개척자라 자칭하는 기식자에 의해, 이른바 근대적 가치는 메시지의 순도가 오염되고 정격에서 어그러진 채 수행된다. 『개척자』의 연재를 제안한 매일신보의 의도와 달리⁴⁰⁾, 이 소설은 근대화와 국민 만들기 기획에 쉽게 통제되지 않는 기식의 연결망을 펼쳐 보였다. 이 세계에서 통제와 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소음을 말끔히 걷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광수는 그 사실 앞에 솔직했다.⁴¹⁾ 이런 작가적 태도는 『개척자』가 『무정』과 달리 현실 인식에 냉철해야 할 지식인 독자를 겨냥했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⁴²⁾

『무정』의 연재를 마치고 불과 7개월 만에 이어진 후속 연재이지만, 『개척자』의 결말은 전작과 달리 우울하고 절망적이다. 식민 권력이 의도하는 정치적 기획에 충실해야 했다면 다른 방식의 마무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개척자』에서 이광수는 식민지의 소음을 경청하며, 근대 문명의 신감각을 예찬했던 『무정』의 소리를 비판적으로 상대화시켰다. 예정된 파국을 향해가는 기식자들의 생태를 보여줌으로써, 제국의 숙주이자 기식자 간의 상호 착취가 만성화된 식민 공간의 문제성을 포착한 소설이 된 것이다.

40) 김영민, 앞의 논문, 111쪽 참고. 이 문제와 관련해 1910년대 이광수가 매일신보에서 담당했던 담론의 의미를 연구한 김현주의 논문도 중요하다. 김현주,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사회 담론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3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41) 이 점은 이광수 스스로 자신의 작가적 태도를 밝히며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某시대의 某방면의 충실한 기록’으로서 소설을 쓰기 위해 작가의 이상보다는 조선 청년의 모형을 그리고자 애썼다는 고백이다. 이광수, 「여의 작가적 태도」, 『이광수 전집』10, 삼중당, 1971, 460-461쪽.

42) 김영민, 앞의 논문, 88쪽.

5. 結 : 기식의 바깥

성재에게 가능했던 다른 삶의 행로는 무엇이였을까? 그가 학교 교수 자리를 받아들여 월급생활자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었다면 『개척자』는 어떤 이야기로 바뀌었을까? 그는 기식의 바깥을 찾을 수 있었을까?

1915년에 개설된 경성공업전문학교는 한국인 학생을 입학 정원의 1/3 이내로만 뽑았다. 어디까지나 일본인 중심 학교였다. 경비 절감과 일본인 중심체제 유지를 위해서 예산 규모는 최소한으로 짜여 있어서, 거액의 비용 소모와 수년간의 실패를 감수해도 되는 실험 프로젝트는 꿈도 꿀 수 없었다. 1917년 인가를 받은 사립 연희전문학교가 당시 조선의 고등교육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이학 학과를 갖추었지만, 그 수준과 규모는 경성공업전문학교보다도 미미한 형편이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일제가 세운 경성제대가 있었지만, 한국인 과학자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⁴³⁾

학교 바깥에서 전공을 살려 직업을 찾기는 훨씬 더 어려웠다. 식민지 조선에서 운영됐던 기관들은 주로 본토에서 데리고 온 일본인들로 충원되어 운영됐다. 일본질소(日本窒素)가 1927년 흥남에 세운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조차도 조선인 기술자 채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해방 직전 흥남지역의 대공장에 종사하던 전체 기술자 1,013명 중에서 한국인은 고작 14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들조차 중요치 않은 업무에 종사했다.⁴⁴⁾

‘비날론’을 발명한 저명한 화학자인 리승기(1905~1996)도 해방 이전까진 식민지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서 과학자의 경력을 쌓았다. 그는 민족적 멸시를 참으며 교토 대학을 졸업하고 동시대 일본인 학자에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인 화학자로 성장했다. 『개척자』의 김성재가 도달하

43) 김근배, 앞의 책, 375-412쪽.

44) 양지혜, 「전시체제기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식민지 노사관계-흥남 비료공장의 노동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16, 194-200쪽 참고.

고자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목표를 현실로 이뤄낸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평생을 적은 수기에는, 격동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실험실과 과학의 일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과학자가 과학의 길로부터 내쫓겨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수척한 몸으로 논밭을 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⁴⁵⁾

과학은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김성재처럼 화학자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의 ‘과학영웅’으로 칭송받은 리승기는 국가에서 마련해준 훌륭한 연구실에 감격하여 수기에 이렇게 적었다.

산업부상이 내 연구소 때문에 직접 파견되었다. 부상의 지도로 산중에 궁전이 세워졌는데, 산 중턱에 큰 동굴이 파지고, 그 안에 훌륭한 연구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내의 기둥과 벽은 멋지게 장식되었고 채광과 통풍도 충분히 고려되었다.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열기가 설치되고 전등도 설치되었다. 연구소의 내부에는 침실, 식당, 욕탕, 오락실 등 모든 시설이 갖추어졌다.⁴⁶⁾

리승기는 이 수기에서 난생처음 오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국가를 향하여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의 운명과 사회제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 과학자의 운명은 결국 그 자신의 자질과 노력, 즉 주관적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

45) 리승기,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대동, 1990, 130쪽. 이 책의 원제는 『과학자의 수기』로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는 이 책의 일본어 역을 다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한 것이다.

46) 위의 책, 85쪽.

다.”⁴⁷⁾ 과학자의 건강한 기식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 조건에 대한 통찰이 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의 선배 격인 『개척자』의 성재를 위한 변론처럼 들린다.

『개척자』는 사회제도의 모순과 부조리, 식민 공간의 낙후성, 원대한 과학의 꿈을 감당하지 못하는 왜소한 자본의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메꿀 수 없는 결핍을 기식의 관계망에서 대체하려 할 때, 어떤 파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성재는 그의 실험실을 국가와 자본이 외면한 과학의 공공성을 수행할 장소로 운영하고 싶었으나, 이 장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기생 경제에 허비되고 만다. 이 소설의 기식자들이 점점 더 암울해지는 현실에 맞서려 할 때마다, 그들은 청각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 같은 특징적인 서술은 『개척자』를 기생 생활자의 흔치 않은 임상 기록지로 재발견하게 한다.

세르의 『기식자』는 이와 같은 분석에 이론적 통찰을 제공하는 동시에, 악순환으로 치닫는 기식의 관계망을 진정시킬 기본 원리를 제시한다. 기식의 기식 관계에서 서로는 기식자이자 동시에 숙주이면서 주인이 되는 역설로 묶인다. 이들이 공생의 집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통의 적이 설정되거나, 사회적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사물의 힘이 필요하다. 이를 세르는 ‘준대상(quasi-object)’이라 명명했다.⁴⁸⁾

준대상은 관계망 내에서 능동적 행위자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 연결 자체를 구성한다. 『개척자』의 ‘실험실’은 7년간 그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소설의 기식자들은 시효가 다한 실험실을 대신해 관계망을

47) 위의 책, 130쪽.

48) 미셸 세르, 앞의 책, 361-368쪽 참고. 세르는 스포츠 게임에서 공의 역할을 예로 들어 준대상의 상호구성적 성격과 사회적 집합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축구는 공(대상)과 운동선수(주체)가 소집된 것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둘이 결합하여 움직여야 경기는 시작된다. 그리고 준대상인 공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연결망의 형태는 변화한다. 이때 공은 연결망의 일부이면서, 내부를 순환하며 연결망을 변화시키는 내재적 존재이기도 하다. 세르는 이 논의를 총체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대표적 준대상인 돈의 순환과 정치 경제의 문제로 확장한다.

리부트할 새로운 준대상에 결합하지 못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순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었다.

성순은 가세를 회복하는 일이나 실험실을 재건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와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갈구했다. 가족의 굴레를 넘어 기식자들의 거대한 연결망에서 전개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서울 밤의 풍경을 내려다 보며 변화를 소망할 뿐인 『개척자』의 서사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개척자』의 매일신보 연재가 종료되고 다음 해인 1919년 봄, 식민지 조선 사회에 억압되어 있던 온갖 기식음이 폭발한다. 사람들을 연대하게 하고, 함께 움직이도록 촉발하는 (광장, 격문, 깃발 등등의) 준대상의 발명과 발견도 이어졌다.⁴⁹⁾ 소설의 상상력이 멈춰 섰던 자리를 지나 역사가 나아갔던 것이다.

49) 천정환, 「소문(所聞)·방문(訪問)·신문(新聞)·격문(檄文) :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36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이 논문과 함께 관련 연구가 집대성된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들베개, 2019.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개척자』, 정홍섭 감수, 태학사, 2019.
『이광수 전집』, 삼중당, 1971.
윤치호, 박미경 옮김,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7』, 국사편찬위원회, 2015.
김철 校註,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4.
『동아일보』, 『개벽』, 『삼천리』
리승기,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대동, 1990.

2. 논문과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김경미, 『이광수의 문학과 민족 담론』, 역락, 2011.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김동인, 『춘원연구』, 『삼천리』, 1925.
김명수, 『대한제국기 일본의 금융장악 기도와 일본 제일은행 - 1903년
공립한성은행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본문화연구』 47호, 동아
시아일본학회, 2013, 29-54쪽.
김성례, 『중여론과 중여의 윤리』, 『비교문화연구』 11(1), 서울대학교 비
교문화연구소, 2005, 153-186쪽.
김영민, 『『개척자(開拓者)』 다시 읽기』, 『사이間 SAI』 18, 국제한국문학
문화학회, 2015, 83-115쪽.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한길사, 1986.
김재석, 『<규한>의 자연주의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한
국극예술학회, 2007, 41-72쪽.

- 김주리, 「1910년대 과학, 기술의 표상과 근대 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41-74쪽.
- 김현주,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 -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사회 담론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3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221-261쪽.
- 류수연,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 『비교문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61-89쪽.
- 맛떼오 파스퀴넬리(Matteo Pasquinelli), 서창현 옮김, 『동물혼 Animal Spirits』, 갈무리, 2013.
- 문만용·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미셸 세르(Michel serres), 김웅권 옮김, 『기식자 Le Parasite』, 동문선, 2002.
- 박세진, 「선물과 이름 : 근본적인 인정 행위로서의 증여」, 『비교문화연구』 2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265-309쪽.
- 박정호,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 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 『문학과 사회』 7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09, 7-49쪽.
-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5, 143-171쪽.
- 브뤼노 라투어(Bruno Latour), 장하원·홍성욱 옮김, 『판도라의 희망 Pandora's Hope』, 휴머니스트, 2018.
- 소영현, 「정열의 근대적 배치- 최찬식의 『능라도』와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159-186쪽.
- 오태호, 「이광수의 장편소설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사적 인식의 차이 고찰 - 『무정』, 『개척자』, 『혁명가의 안해』, 『흙』 등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5호, 춘원연구학회, 2019, 109-138쪽.

- 이경훈, 「실험실의 야만인」,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237-268쪽.
- 이승철, 「불가능한 증여, 기생의 사회: 자크 데리다와 미셸 세르의 상호성 비판」, 『비교문화연구』 제25집 2호, 서울대비교문화연구소, 2019, 191-229쪽.
- 이예찬, 「북한에서 춘원의 위상은 왜 변화하였나?-1956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지영, 「이광수의 <일설춘향전>에 대한 再考」, 『한국현대문학연구』 49호, 한국현대문학회, 2016.
- 이행미, 「두 개의 과학, 두 개의 문명 :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95-134쪽.
- 양지혜, 「전시체제기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식민지 노사관계 - 흥남비료공장의 노동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16, 189-237쪽.
- 정태현, 「漢城銀行의 經營權, 大株主 구성 추이와 日本人銀行化 과정」, 『韓國史研究』 제148호, 한국사연구회, 2010, 199-239쪽.
- 전혜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주체 구성 과정과 상징적 네트워크로서 근대 경제 체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논문, 2019.
- 천정환, 「소문(所聞)·방문(訪問)·신문(新聞)·격문(檄文) :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36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109-154쪽.
- 캐슬린 매클리프(Kathleen McAuliffe), 김성훈 옮김, 『숙주인간 This Is Your Brain On Parasites』, 2017.
- 황종연, 「노블, 청년, 제국-한국 근대 소설의 통국가간 시작」,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2005, 263-297쪽.
- _____, 「신 없는 자연-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 143-182쪽.

<Abstract>

From the Information System of Parasitic
Economy and Parasitic Noise: A Rereading of
Lee Gwang-Soo's *The Pioneer*

Lim, Tae-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ioneer* from the perspective of parasitic economy. The first half of the novel is comprised of the conflict between the economics of mutual aid and predatory financial capital. Seung-Jae's household had believed and practiced the economics of mutual aid for generations, but it eventually falls for financial capital, which aims to maximize profit seeking. The relationship of Seung-Jae's family with the laboratory is also related to economics. Seung-Jae's laboratory is a site subjected to the financial order of the real world where Hansung Bank, loan-sharks, and legal personnel are all intertwined, as well as a site representing the mutually parasitic patriarchy. This is why, as the story progresses in the second half of the novel, the division between the economics of mutual aid and predatory financial capital becomes blurred, with schemes and attempts to plunder and steal abound. *The Pioneer*, thus, can be considered an account of the parasitic economy.

In each scene where the parasites look for ways to survive, or try to capture hosts for parasitization, *The Pioneer* characteristically

* DGIST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s more sensitive to sound and hearing. In the information system of parasites that plunder and steal from each other, the hierarchy and codification of messages and noise, and language and sound change very sensitively based on power relations. “Sound” reveals the information that is codified in unique ways for every parasitic relationship network.

This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analyzes what kinds of parasitic relationship networks exist, focusing on Seung-Jae’s laboratory, using the approach of previous studies to view *The Pioneer* as a science fiction novel. The next section examines the forms of parasitic economy that plunder and steal from each other, through the series of processes conducted for the operation, loss, and restoration of the laboratory. The third section explores how the issues of “parasitism” and “noise” can be considered together through the characteristic narrative regarding “sound” and “hearing” in *The Pioneer*.

Key Words : Lee Gwang-Soo, *The Pioneer*, Parasite, Michel Serres, Parasitic Economy, Parasitic Noise, Noise, Rentier, Science, Laboratory

■ 논문접수 : 2020년 3월 22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2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

